

1) 관련 형사사건

가)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로 하여금 신형 C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재물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후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및 2021. 12. 3.경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 이전에 C의 성능저하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이 사건 C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형 C을 사도록 유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

한편 이 사건 C의 다른 사용자가 '피고 B가 이 사건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키는 내용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업데이트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08359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026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2019. 6. 13.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상고제기 없이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